

‘VP’/‘V₁V₂’+(‘了’) 사동구조의 경계성 분석

이봉금*

【목 차】

1. 서론
2. 언어에 반영되는 경계성 현상
 - 1) 동사의 유형과 경계성
 - 2) 활동동사와 사건동사
3. ‘VP’/ ‘V₁V₂’+(了) 구조의 경계성 요소분석
 - 1) ‘VP’ 사동구조
 - 2) ‘V₁V₂’ 사동구조
 - 3) ‘了’의 수반에 의한 경계성
 - (1) ‘VP+了’ 구조의 경계성
 - (2) ‘V₁V₂+了’ 구조의 경계성
4. 결론

【초록】

경계성(界性)이란 인류가 객관세계 사물의 경계(Boundary)를 인식하는 한 방식으로 유경계성(有界, boundary)과 무경계성(無界, unboundary)으로 분리된다. 인지적 경험에 근거하여 사물에 대한 ‘경계 설정’이 가능하면 그 사물은 유경계성을 띠고, 이 ‘경계 설정’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물은 무경계성을 띤다. 인지언어학자들은 경계성 이론을 언어현상에 응용하여 설명하기 시작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언어현상의 경계성 이론에 입각하여 중국어 사동문법의 인지적 분석에 응용해 보았다. 특별히 현재 상용되고 있는 다양한 중국어 사동형태 가운데 그 형식상 동일한 유형의 사동구조로 취급되고 있는 ‘NP₁+VP+NP₂’ 구조와 ‘NP₁+VP(‘V₁V₂’)+NP₂’ 즉, 결과보여 사동구조에 착안하여 구조상 존재하는 문법적 차이를 근거로 ‘VP’와 ‘V₁V₂’가 술어로서 한정짓게 되는 경계성의 차이를 탐구하였다. 아울러 NP₂와 了의 수반으로 인해 경계화 짓는 특성 및 자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인지적 분석으로 접근하였다.

【키워드】 인지언어학, 경계성(有界), 무경계성(無界), 경계화‘VP’ 사동구조, ‘V₁V₂’ 사동구조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marbum79@naver.com)

1. 서론

인류가 존재하는 이 세계의 객관적 사물과 동작에는 경계(Boundary)의 대립이 존재하는데, 이를 두고 경계성(界性)이라 한다. 인지적 경험에 근거하여 사물 또는 동작에 대한 ‘경계 설정’이 가능하다면 이는 유경계성(有界, boundary)을 띠고, 불가능하다면 무경계성(無界, unboundary)을 띤다.¹⁾ 이러한 경계성 이론을 다음 중국어 사동문법의 인지적 이론에 응용하고자 한다.

(1) 我聽到他的話, 就害羞地紅了臉。 → 그는 그의 말을 듣자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²⁾

(2) 他喀嚓一聲咬碎了冰塊。 → 그는 아드득 얼음조각을 깨물어 부숴다.³⁾

예문 (1)은 일반적으로 단일한 동사 ‘VP(AP/VP)’⁴⁾가 사동술어로 참여하는 ‘NP1+VP+NP2’⁵⁾ 형식의 사동구조로 NP2 ‘臉’이 ‘紅’이라는 상태로 변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나타낸다. 한편 (2)는 사동술어 VP(V1V2)가 NP2에 대해 변화상태를 야기하는 비슷한 이치이지만 ‘咬碎’는 선후 발생한 두 가지 인과적 사건을 나타내는 구조(NP1+VP(V1V2)+NP2)로, 술어동사나 보어의 교체가 가능하기에 사동의 생산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두 구조의 ‘VP’와 ‘V1V2’의 특성에 근거하여 이들이 ‘술어’로서 한정짓게 되는 경계성 및, ‘了’의 수반으로 인한 자질과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인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은 비록 표면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보이지만, 후자의 경우 ‘咬碎’, ‘磨碎’, ‘破碎’처럼 한 어근에 대해 형태적 결합과정을 통한 파생이 가능하기에, 단일한 VP로써 본질적으로 원동사와 사동사 간에 형태적 관련성과 파생성을 논할 수 없는 전자와는 서로 다른 사동구조임을 밝히는 하나의 논증을 마련하기 위함이다.⁶⁾ 특별히 일반구문이 아닌

1) 이우철, 「有界, 無界 이론을 이용한 중국어 연구에 대한 고찰」, 『중국인문과학』, 第44集, 2010, p.118에 언급된 Langacker·나익주 옮김, 『개념·영상·상징—인지문법의 토대』, 서울: 박이정, 2005, pp.126-132 내용을 참고한 것임.

2) 『고려대 중한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9.

3) 『(최신)중한사전』,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2001.

4) 본문에서의 사동동사 ‘VP’는 비단 동사(자/타동사)뿐 아니라 형용사가 술어로 작용한다.

5) 어휘사동의 본질에 대해 Comrie, B,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2nd edition. Blackwell: Oxford, 1981, pp.164-168은 이상적인 예로서 보충형 사동을 들었다. 예컨대 영어의 ‘die(죽다) -kill(죽이다)’, 러시아어의 ‘umeret(죽다)-ubit(죽이다)’와 같은 대립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중국어에서의 ‘죽다’의 기본 동사는 ‘死’인데, 사동 의미인 ‘죽이다’를 의미하는 보충 쌍은 ‘殺’이다.

6) 일반적으로 NP1+VP+NP2구조와 NP1+V1V2+NP2구조에 대해서는 어휘적 사동이라는 인식이 크다. (石毓智, 「漢語發展史上的雙音化趨勢和動補結構的誕生」, 『語言研究』, 第1期, 2002, (宛新政, 『現代漢語致使句研究』, 復旦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07 ; 何元建, 『生成語言學背景下的漢語語法及翻譯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07 ; 박미정, 『現代中國語의 使動表現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pp. 66-74 ; 이수진, 「현대중국어 어휘 사동의 의미 구조」, 『中國語文學論集』, 第70集, 2011 등을 들 수 있는데, 자동사나 형용사가 목적어를 수반하는 겸류사나, ‘동사+결과보어’ 결합구조가 한 단어화 되어 어진 복합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 ‘NP1+VP+NP2’를 전형적 어휘적 사동구조로 보고, ‘NP1+V1V2+NP2’를 결과보어 사동구조라고 칭한다. 후자의 경우 어휘와 어휘의 형태적 결합에 의해 수많은 사동의미를 파생해 낸다는 특징에 착안해 주석(3)과 같은

사동을 의미하는 ‘VP(V1V2)了+NP’의 구조 안에서 ‘了’의 역할은 단순히 행위나 상황에 대한 종결을 넘어 ‘NP’에 대해 새로운 사건 상황의 국면을 실현시킨다는 의미에서 유계화를 생성하는 관건적 기능을 하기에 매우 의미있다고 본다.

두 사동구조의 경계성 분석에 대해서는 인지언어학적인 도식화를 바탕으로 이해를 도울 것이다. 또한 문장 내 성분들에 대해 유경계화하는 각종 수단의 활용 및 문장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陳平(1987), 陳平(1998), 沈家煊(1995), 石毓智(2000) 및 呂爲光(2007) 등의 이론을 참고하기로 하겠다.

지금까지 인지언어학적 각도에서 중국어는 동사나 형용사, 명사와 같은 형태적 단위를 비롯하여 문장단위에 이르기까지 질적 양적으로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사동구문의 유형학적 형태에 있어서의 대립을 논의한 전문적인 연구가 매우 희소하다. 이에 특별히 두 사동구조에 반영된 인지적 이론을 기반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경계성 유무 대립에 대한 자질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언어에 반영되는 경계성 현상

‘유경계성’과 ‘무경계성’은 본디 심리학, 철학 등을 포함하는 여러 범주가 혼합된 개념으로 자연과학과 기초물리학은 물론 언어연구에서 역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 이론이다.⁷⁾ Langacker(1987, 1991)는 인지언어학 연구에 집중한 대표적 학자로서, 인류 객관사물의 경계에 대한 인지행위를 두고 성질과 상태는 양 또는 정도에서, 사물은 공간에서, 동작행위는 시간에서 유경계와 무경계의 대립을 가진다고 하였다. 대표적으로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대립은 이러한 성질을 잘 보여준다.

- (3) a. a rock(바위 한 덩어리), a fine wine(좋은 와인), a good glue(좋은 풀)
b. glass(유리), wisdom(지혜), glue(아교풀)

(3a)는 자신의 주요한 영역 속의 경계 설정을 명시하여 내재적으로 이질성을 각하고 있는 유경계성의 가산 명사를 보여주는 반면 (3b)는 자신의 주된 영역 안에서 내재적으로 경계 지어지지 않는 동질성을 부각하는 무경계성의 물질 명사로 이는 불가산 명사에 속한다. 중국어의 경우 沈家煊(1995)은 Langacker(1987, 1991)의 이론을 근거로 중국어에 반영하여 명사를 유·무경계성으로 나누었는데 ‘*盛碗裏魚’, ‘盛碗裏兩條魚’/ ‘*打破玻璃’, ‘打破兩塊玻璃’에서 보다시피 ‘兩條’, ‘兩塊’와 같은 수량사의 수식을 받는 후자의 예문만이 유경계성 구조가 되어 적격문이 된다. 한편 그는 명사에 그치지 않고 동작과 같은 술어동사역시 특별히 ‘持續動詞(imperfectives)’와 ‘非持續動詞(perfectives)’로 나누어 유·무경계성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어휘적 사동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각 술어인 VP와 ‘V1V2’를 둘러싼 사동구조상 존재하는 인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각종 경계성의 차이를 탐구한다.

7) 이우철, 「有界, 無界 이론을 이용한 중국어 연구에 대한 고찰」, 앞의 논문, 2010, p.118 참조.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본 논문의 핵심인 사동동사의 경계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현상이다.

1) 동사의 유형과 경계성

沈家煊(1995:367-371)은 소위 말하는 술어동사의 경계성이란 행위동작, 변화 등에 기준을 세우는 것으로, 즉 시작점과 종결점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어 한 사건을 경계 짓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그 성질은 다음과 같다.⁸⁾

- ① 무경계성 동작의 내부는 동질적(homogeneous)이고, 유경계성 동작의 내부는 이질적(heterogeneous)이다. 전자의 예로, ‘我很想家’는 시간축상 임의적 분할이 가능하며 임의적인 부분을 취할 수 있다. 역으로, ‘我跑到學校’는 오직 종착점에서만이 비로소 학교에 도달할 수 있다.
- ② 무경계성 동작은 신축성이 있지만, 유경계성 동작은 신축성이 없다. 예를 들어, ‘我很想家’는 시간 상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我很想家’가 되지만, ‘我跑到學校’는 시간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더 이상 ‘我跑到學校’가 아니다.
- ③ 유경계성 동작은 중복성(replicability)을 가지고, 무경계성 동작은 중복성이 없다. 즉, ‘想幾次’는 불가능 하지만, ‘我跑到學校一次, 兩次, 三次’는 가능하다.

중국어 문법구조 안에 경계성 제약현상들이 반영되는 예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학자도 있다. 石毓智(2000)는 만약 한 명사성 성분의 표현대상이 담화 중에 있어서의 어떤 실체라면, 이 성분은 곧 유경계성(referential)을 띤다고 하였다. 역으로, 화자가 어떤 명사를 언급할 때, 구체적인 사람이나 사물이 아닌 오직 추상적인 속성에만 착안한다면 이는 무경계성(nonreferential)의 것이라 하였다. 그는 중국어에서 명사 지칭성과 연관된 주된 단어형식을 다음과 같이 5종류로 구분하였다.

- A: 我去過南京西路。昨天我買了件衫。 -상 표지의 첨가
 B: 我讀完了這本書。一只鳥飛進屋裏。 -보어의 첨가
 C: 昨天我打了三個小時籃球。 -시간사의 첨가
 D: 他把情況向我們反映了一下。 -동량사의 첨가
 E: 把信放在抽屜裏。 -개사구조

위는 중국어 문장 가운데 상 표지나 결과·방향·정도보어 및 시간사나 동량사 첨가, 개사구조 등을 비롯하여 수량사의 표시 등이 모두 중심술어에 ‘결과, 상태, 정도, 시간, 공간, 횟수’ 등의 수식을 부여하여 유경계화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을 보여준다.⁹⁾

8) 영어의 한 예로 부연하자면 ‘Harry resembles his father’, ‘*Harry is resembling his father’에서 좌측 문장이 적절한 이유는 동사 ‘resemble’은 전형적인 지속동사로서 행위에 대해 시간 상 확실한 종결을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간단한 현재시제는 가능하나, 진행형으로 나타날 수 없다. 沈家煊, 『有界與無界』, 『中國語文』, 第5期, 1995, p.371 참조.

9) 각 자질에 관한 설명은 Vendler, Zeno, *Linguistic in Philosophy*, Ithaka, New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와 Günter Radden René Driven, 임지룡·윤희수 역, 『인지문법론』, 서울: 박이정, 2009

일반적으로 동사나 형용사로 구성된 어휘적 사동구조는 원인과 결과를 모두 이끌어 내는 형태적 융합정도가 매우 큰 단일한 VP가 논항과 함께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동사나 형용사의 다양한 조합형태로 이루어져 사동의 원인과 결과라는 개별적 형태로 분리되는 결과보어 사동구조와는 구조적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는 각 구조의 동사술어의 상황유형 및 자질 상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날 것이다. 경계성을 둘러싼 동사의 유형은 상황에 따라 완성(accomplishment), 행위·활동(activities), 달성(achievement), 상태(state)로 구분한 Vendler(1967), 鄧守信(1986) 이론을 참고할 수 있다.

- ① 완성은 시간상 완결을 위해 어떤 지속적인 시간이 걸리는 유경계적 종결사건이다.
- ② 행위는 시간상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비종결적인 사건으로 결말적인 종결점이 없다.
- ③ 달성은 사건 종점의 순간적 발생에 초점이 있는 유경계 사건이고, 선행하는 최고점 즉, 증강 국면을 유발한다.
- ④ 상태란 지속적인 것으로 시간상에서 발하는 것이 아닌 다만 존재하는 것일 뿐이며, 시간상의 변화가 없다.

위 유형들을 분석할 때 대표적으로 [±종결성], [±지속성], [±상태성] 그리고 [±순간성]이라는 기본적 의미 자질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사동현상에 접목자하면, 예컨대 (1)의 ‘晴朗的秋天紅了樹葉’에서 단음절 형태인 ‘紅’의 경우 문장 내 동작의 시작점에서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동질적 연속성만이 존재하며 그 자체만으로는 완전한 결말을 경계 짓지 못하기에 [+지속성], [-종결성]을 설정할 수 있다. 한편 (2)의 ‘他喀嚓一聲咬碎了冰塊’에서 원인행위가 진행되다가 순간적으로 결과에 도달함을 의미하는 ‘咬碎’는 시간선 상 이질적인 비연속성을 보이며 각 시작점과 내부적 종결점을 갖추기에 한 사건을 매듭짓는다. 따라서 [-지속성], [+종결성], [+순간성]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2) 활동동사와 사건동사

한편 동사 유형에 따른 각 자질에 관해서는 문장 내 술어로 작용하는 동사가 활동동사인 지 혹은 사건동사인지의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다. 이는 사동구문 술어동사의 경계성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요소로서 沈家煊(1995:368-371)은 활동동작은 무경계성, 사건동작은 유경계성 개념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① 활동동사는 대부분 ‘在’나 ‘著’와 함께 쓸 수 있고, 사건동사는 어떠한 것은 모두 공기할 수 없거나 혹은 둘 중 하나만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유경계성과 종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在’나 ‘著’와 같은 진행성이나 지속성 성분과는 상충되기 때문이다.
- ② ‘時段’를 표시하는 단어와 쓰일 때, 활동동사는 동작이 지속된 시간을 표시함에 있어 시작점에서 발화시의 시간길이(時間長度)를 나타내고, 사건동사는 동작의 지속된 시간과 종결 후 지속된 시간을 표시할 수 있다.

③ 활동동사와 사건동사는 시점을 나타내는 ‘馬上’이나 ‘一下’ 등과 연용할 때 각각 지향하게 되는 성분이 다르다. 즉 ‘我馬上寫信’은 시작점을, ‘我馬上寫信了’은 종결점을 지향하는 한편, ‘我一下就寫信’은 불가능하나, ‘我一下就寫好信了’는 오직 종결점만 지향한다.

④ 일반적으로 활동동사는 ‘不’로만 부정하지만 사건동사는 ‘沒’만으로 부정할 수 있다.

다음은 상술된 활동 혹은 사건을 나타내는 VP의 예를 보여준다.

(4) a. 在盛, 盛著 / 在打, 打著 / 在飛, 飛著 / 在吃, 吃著

b. *在盛碗裏, *盛著碗裏 / *在打破, *打著破 / *在飛進來, *飛著進來 / *在吃了, *吃著了

위 (4)는 在나 著와 공기할 수 있음의 여부를 보여주는데, (4a)의 盛, 打, 飛 등은 일종의 활동을 나타내는 동작으로 동질적 연속성이 존재하며 명확한 시작점과 종결점이 없기에 在, 著와의 공기가 성립한다. 이에 반해 (4b)의 ‘盛碗裏’, ‘打破’, ‘飛進來’ 등의 행위들은 ‘碗裏’, ‘破’, ‘進來’로 인해 시간선상 비교적 명확한 종결점을 갖추기에 하나의 사건을 완성하며 在, 著와의 공기가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요컨대 본 논문은 두 종류의 VP에 대해 활동동사의 경우, 동사 자체만으로는 관계 대상인 NP2의 상태에 대해 구체적 제약작용을 하지 못한 채 행위·활동(activity)의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때문에 대상에 대한 변화의 양상을 도출해 내지 못하므로 완전한 사건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사건동사의 경우 성질 혹은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 어떠한 활동이나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과정을 담게 되며, NP2에 대해 하나의 완전한 경계성을 띠는 사건(bounded event) 구조를 완성한다. 그럼으로써 기본적으로 확실한 하나의 시작점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자연적인 종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렇듯 Vendler(1967), 鄧守信(1986)을 참고로 상술한 기본적 자질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VP(V1V2)+了’구조 및 목적어를 수반한 ‘VP(V1V2)+了+NP2’ 구조가 사동을 구성함으로써 생성하게 된 몇 가지 경계성 의미자질을 부가적으로 설정하여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3. ‘VP’/ ‘V1V2’+(了) 구조의 경계성 요소분석

본 장에서는 石毓智(2000)가 언급한 중국어를 유경계화 하는 각종 수단들의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중국어 문장을 탐구하도록 한다. 이에 VP 및 ‘V1V2’ 사동구조의 활동 혹은 사건성의 여부를 파악하고 陳平(1987)을 참고로 술어를 둘러싼 논항 NP1과 NP2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기로 하겠다.

1) ‘VP’ 사동구조

다음은 형용사나 자동사가 목적어를 수반해서 사동의미를 실현하는 어휘적 사동구문의 예이다.

- (5) 在场的人都紅了眼圈。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 (6) 街上凍¹⁰⁾了一層薄冰, 太陽一照明晃晃的。

거리에 한층 살얼음이 얼었는데, 태양이 한번 비추자 번쩍번쩍 빛났다.

- (7) 股市有各種謠言傳出, 涼了炒家們的心

주식시장에 각종 유언비어가 돌아, 투기꾼들의 마음을 낙담시켰다.

- (8) 他的喊聲嚇了我一跳

그의 고함소리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북경대 CCL)

위 예문에서 형용사인 ‘紅’과 자동사인 ‘凍’, ‘涼’, ‘嚇’ 등은 한 어휘소가 비사동사 및 사동사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원인을 나타내는 사동행위 및 그에 대한 결과 즉, 인과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융합하고 있으며, ‘Vi+O’, ‘VR+O’ 형식으로 목적어 논항을 취해 사동구조를 이루고 있다.

VP 자체는 단일 동사이기에 본질적으로 일종의 활동(activity)만을 나타내며 어떠한 사건의 원인행위와 그를 통해 도달하는 확실한 결과점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어휘적 사동구문은 어떠한 형식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了’가 추가된 ‘VP+了’의 구조적 기저 안에서 ‘Cause’의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또한 그 뒤 NP2를 수반함으로써 NP1 작용힘의 전달을 통해 비로소 완전한 사동의 실현이 가능케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5)의 사동구조에서 작용하는 VP의 속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 (5) 在场的人都紅了眼圈 →



위 단일어휘인 ‘紅’은 문장 내에서 어휘 사동동사로 작용하고 있으나, 단어 자체만을 보면 하나의 완전한 사건을 이루지 못하며 성질 혹은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각 VP의 뒤 ‘了’와 NP2를 대동함으로써 ‘원인+결과’의 복합사건을 이루는 사동동사로 작용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어휘적 사동동사로서 VP는 NP1인 ‘在场的人’과 NP2 ‘眼圈’ 간에 각각의 의미관계를 형성하고 어떠한 활동이나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과정을 담게 되며, NP2에 대해 모종의 결과상태¹¹⁾를 명백히 하게 된다. 이렇듯 경계성을 띠는 하나의 사건

10) ‘凍(了)’의 경우 사동자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NP2이자 하나의 현상을 나타내는 ‘一層薄冰’으로 하여금 얼게 만드는 모종의 비가시적 사동자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들 수 있다.

11) ‘결과’란 이미 동작이나 행위가 종착점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하는데, 어휘적 사동에서 말하는 ‘결과 상태’란 예컨대 NP1인 ‘在场的人’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 NP2인 ‘眼圈’에 대해 원래의 눈언저리 색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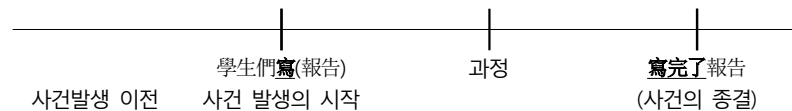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완전한 사동의미를 도출해 내는데, 기본적으로 [+종결성]과 [-지속성], [-상태성]을 설정할 수 있다.

이어서 VP와 결합을 이루는 NP2를 보면 각각 ‘一層薄冰’, ‘炒家們’이라는 수량사나 한정성분을 수반하여 중심어를 한정화 시켜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石毓智(2000)가 주장하는 경계화수단의 예를 내포한 것으로 NP2 전체는 곧 유경계성을 띤 명사성분이 된다. (5)와 (8)의 ‘眼圈’과 ‘我’는 아무런 수식어가 첨가되지 않았는데, 이는 문맥상 ‘눈시울’과 ‘나’라는 대상은 명확히 누구의 것인지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경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VP了+NP2’의 조합 역시 ‘활동’과 ‘사건’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 陳平(1987)은 시상구조 특징을 근거로 이와 같은 조합의 목적어가 단독으로 출현하는 일반명사일 경우 ‘VP+NP2’ 자체는 ‘활동’을 나타내지만, 만약 목적어가 고유명사나 ‘這/那+(量)+명’ 혹은 ‘수량+名’구조일 경우 ‘사건’을 나타낸다고 하였다.¹²⁾

2) ‘V1V2’ 사동구조

일반적으로 ‘NP1+V1V2(VP)+NP2’구조는 ‘做完’, ‘買到’, ‘說好’와 같이 ‘V2’가 다만 VI의 동작행위에 대한 완료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와 ‘打破’, ‘喊啞’, ‘推倒’와 같이 ‘V2’가 실질적 어휘의미를 발휘하여 VI의 동작행위에 대한 확실한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등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는 곧 NP2의 상태변화를 초래하는 사동구조가 된다. 두 구조는 각 어휘가 의미관계를 맺는 논항이 다르고, 경계하는 범위 역시 차이가 발생한다.

(9) 學生們寫完了報告→



설명도의 ‘寫完’은 ‘V1V2’의 결합구조로 이루어진 ‘완성’사건이다. 원인에 해당하는 ‘學生們寫’는 사건의 시작점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사건의 완전한 종결을 나타낼 수 없다. 한편 결과

에 대비해 ‘붉은 상태로 변화시켰다’라는 사건을 발생시킴을 말한다. 단일한 형용사 ‘紅’ 자체만으로는 ‘지속성’을 띠는 성질이기에 상태에 대한 종결점을 찾을 수 없다. 沈家煊, 「有界與無界」, 『中國語文』, 第5期, 1995에 따르면 동사 뒤에 보어나 ‘了’ 또는 방향보어 등을 첨가함으로써 하나의 자연적인 종결점을 세워 사건동작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連續동작	架著, 吃著, 盛著	종결점없음	수량사를 배척함
活動	架, 吃, 盛, 飛	임의종결점	수량사와 결합가능
事件	架好, 吃了, 飛進來	자연종결점	수량사를 요구
定時 동작	吃吃, 架一架, 盛一下	고정종결점	수량사를 배척함

즉 ‘紅’은 ‘了’의 수반으로 인해 일종의 상황, 상태를 조성하여 하나의 완전한 사건이 이뤄지게 해 자연종결점(동사 즉 동작행위는 시작과 끝을 시간적 개념에서 찾을 수 있기에 시간 종결점으로도 볼 수 있다)을 세울 수 있다. 또한 한정 성분의 NP2를 수반함으로써 상태 변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3.3절 ‘了’의 수반에 의한 경계성에서 언급한다.)

12) 그는 이 구조에 대해 ‘활동류 상황(活動類情狀)’과 ‘결속류 상황(結束類情狀)’으로 분류하였다.

사건인 ‘寫完了報告’는 사건의 종착점이 되며 사건을 이끌어가는 ‘寫’라는 무경계성 술어에 대해 결과보어 ‘完’이 사건의 종결을 뒷받침 해준다. 따라서 시간도식에서 열린 화살에서 굵은 볼드체로 사건의 종결점으로 이끄는 표시가 되며, 사건 결말의 초점은 볼드체의 경계점에 의해 표시된다. 이러한 구조의 V2는 V1를 지향하는데 이 밖에도 ‘我洗了抹布+ *抹布完’, ‘我忘了那個人的名子+ *那個人的名子掉’가 비문이 된 것처럼 V2는 어떤 논항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V1이라는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며 ‘V1V2’ 결합 또한 단지 한 사건을 서술할 뿐이다.¹³⁾ 다음은 사동의미를 가지는 ‘V1V2’ 결합구조의 예이다.

(10) 孩子喊啞了嗓子。

아이는 소리 질러 목이 쉬었다.

(11) 生活無著落, 一些人哭瞎了眼睛, 有的人甚至自殺身亡。

살아나갈 방도가 없자, 몇몇은 울어 눈이 멀었고, 어떤 자들은 심지어 자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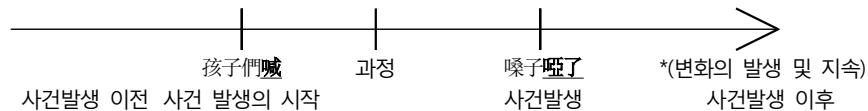
(12) 咱們跑破了一對青緞鞋。

우리는 달리다 푸른 비단단화 한 켤레를 망가뜨렸다.

(고려대 중한사전)

위 ‘V1V2’구조의 복합 사건들은 명백한 시작점과 종결점을 나타내는데 사실상 모든 동사나 형용사의 결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비록 비슷한 형식구조를 취하지만 어휘적 사동구문의 속성 및 자질과 엄연한 차이를 가지기 마련이다. 그 구조적 속성을 분석해 보자.

(10) 孩子們喊啞了嗓子 →



위 ‘喊啞’는 ‘동사+동사’의 형태적 결합에 의해 종합적으로 사동의미가 표현되기에 기본적으로 원인사건인 V1과 그 결과인 V2라는 인과적 현상이 자립적으로 각각 NP1 ‘孩子們’ 및 NP2 ‘嗓子’와 의미관계를 형성하며, 어떠한 활동이나 상태까지 담아내는 과정을 그린다. ‘孩子們喊’은 사건의 시작점으로 전 사건을 이끌어 가는데, ‘喊’이라는 무경계성 술어 자체만으로는 사건의 완전한 종결을 맺지 못한다. 결과사건인 ‘嗓子啞了’에서 ‘啞’는 ‘喊’이라는 사건발생에 대해 매우 긴 지속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 순간적 종착에 이름을 표상하는 ‘달성’사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동작의 발생시간이 종결된 시간과 중복되지 않은 유경계성 구조로 [-지속성]과 [+경계성], [+순간성]을 설정할 수 있다. ‘달성’사건은 도해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시점에서 동질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선행하는 점에 이은 후행하는 최고점이 주된 역할이 되고 사건 결말에 대해서는 볼드체의 경계점으로 표시하였다.

13) ‘學生們寫完了報告’를 의미적으로 분석해 볼 때 ‘學生們寫報告+報告完了’로 분리 가능하여 V2 完이 報告를 지향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본 문장에서 完이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報告’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寫’하는 행위를 마치는 것이므로 의미지향은 ‘報告’에 있는 것이 아니라 ‘寫’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V1V2’와 결합하는 NP2를 보면 (12)만이 ‘一對’라는 수량사를 수반하여 중심어를 경계화 시키고 있다. 결과보어 사동구조는 단일하게 중심어 성분만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10)의 嗓子는 비록 한정어가 없지만 이는 분명 ‘孩子’의 목일 것이고, (11) ‘眼睛’ 역시 ‘一些人’의 신체 일부이기에 비록 생략되었지만 암묵적으로 ‘一些人的’라는 한정어를 추가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V2’의 지향성분(논항)을 통해서도 경계성을 논할 수 있는데 이는 두 종류로 나뉜다. ‘V2’가 실질적 의미를 가질 경우, V1V2는 독립적으로 두 개의 논항을 지향하는데, (11)은 ‘一些人哭+眼睛瞎了’로, (12)는 咱們跑+一對青緞鞋破了와 같이 의미를 내포하는 각 동사들이 두 개의 독립된 사건을 형성한다. ‘V1’는 의미지향이 ‘NP1’에 있지만, ‘V2’의 의미지향은 ‘NP2’에 두고 상태변화를 실현함으로써 그 사건에 대해 경계화 한다.

한편 각 ‘V1’과 ‘V2’가 한 가지 논항만을 지향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 ‘V1’과 ‘V2’는 모두 ‘NP1’만 지향하거나 혹은 ‘NP2’만을 지향하고 있다.

(13) 媽媽洗累了那些髒衣服。

엄마는 그 더러운 옷들을 빨다 지치셨다.

(14) 諸葛亮氣死了周瑜。

제갈량은 주유를 화나 죽게 했다.

위 (13)의 ‘洗累’는 모두 ‘NP1’인 ‘媽媽’를 지향하는 한편 (14)의 ‘氣死’는 NP2 ‘周瑜’를 지향한다. 결국 지향하는 논항 종류나 V1의 특성과 상관없이 사건을 매듭짓는 성분은 V2로 ‘累’와 ‘死’는 V1이라는 행위과정이 종착하는 종결점이자 달성점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V2는 V1에 대한 결과나 상황을, 혹은 각 V가 NP1, NP2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 논항의 상태를 확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과상태인 NP2의 상태변화를 초래함으로써 한 사건을 달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어휘적 사동구조와 결과보어 사동구조 술어 뒤에 수반되는 ‘了’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한데, ‘了’는 사건이 종결되고 완전히 실현됨을 강조 해 주기 위한 성분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VP와 ‘V1V2’ 뒤에 등장하고 있는 ‘了’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하여 보자.

3) ‘了’의 수반에 의한 경계성

VP는 목적어를 수반할 때 그의 상태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가적인 수단 ‘了’를 추가할 수 있다. ‘了’의 역할에 대해서는 ‘완료’, ‘변화’, ‘새로운 상황의 출현’, ‘정도의 표현’¹⁴⁾ 그리고 ‘어기조사’ 등 그 기능이 매우 광범위하다. 일반적으로 ‘了’는 그 역할에 따라 크게 다음 예로 구분할 수 있다.¹⁵⁾

14) 예컨대 劉勛寧, 「現代漢語句尾‘了’的語法意義及其解說」, 『世界漢語教學』, 第3期, 2002는 정도가 지나침을 나타낼 경우 ‘不滿’이나 ‘不喜歡’에 주로 쓰이는데, 太가 수식하는 것은 소극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정도가 지극히 높음을 나타낼 경우 ‘贊嘆’에 주로 쓰이는데, 太가 수식하는 것은 적극적 의미의 단어라고 하였다.

15) 좀 더 포괄적으로 어기를 표현할 때 쓰이는 了가 있지만 본 논문과 연관이 없는 관계로 제외한다.

(15) 我吃了一碗面條。 나는 국수 한 그릇을 먹었다.

(16) 外邊突然下雨了。 밖에 갑자기 비가 온다.

(15)는 ‘다 먹었다’는 동작의 완료인 완성태의 표기로 작용하는 예이고, (16)은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비가 내리는’ 사건변화나 새로운 상황의 출현을 나타내는 예이다. 그렇다면 사동구문의 경계성을 논하는 입장에서 了의 추가로 인해 생성된 술어의 자질이 무엇이고 이러한 자질을 종합해 볼 때 이들 가운데 한 성질에 귀속될 수 있는지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了’의 경계성 기능에 주목한 학자들이 있는데, 馬慶株(1992:8)는 동사구문에서 경계성(boundedness)이란 동사 뒤에 결과보어 V2를 수반하거나 상표지 ‘了’의 첨가, 또는 목적어로 수량명사를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吳福祥(2005)은 동작행위의 완성을 표기하는 ‘了’가 자율적으로 출현함에 대해 완성태의 기능은 하나의 상황이 시간상 경계성을 나타내는 것 즉, 상황을 ‘경계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呂為光(2007:148)은 ‘了’가 무경계 개념을 유경계 개념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지는데, 이에 ‘吃了’, ‘寫了’는 유경계성을 띠며, 수반되는 NP2 ‘飯’, ‘信’은 자체만으로는 무경계성 명사이기에 이들이 결합하기 위해서는 경계화 시켜주는 성분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7) * 吃了飯(有界 - 無界) 吃了一碗飯(有界 - 有界)

(18) * 寫了信(有界 - 無界) 寫了一封信(有界 - 有界)

상술한 동사 ‘吃’, ‘寫’는 모두 비지속성으로, ‘了’를 추가함으로 인해 유경계화 된다. 모든 문장들은 ‘了’의 첨가 이후 술어동사가 일종의 상황, 상태를 조성하여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사건을 이루는 ‘사건구문’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NP2 ‘飯’, ‘信’은 이를 한정시켜 주는 수량사 ‘一碗’과 ‘一封’으로 인해 이들 명사를 경계화 시켜주고 있다. 李興亞(1989:334)는 완성태 표기인 ‘了’가 자율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상황의 구체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구체적 요소	구체적 예문
(1) 동사 앞에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가 있다.	大炮 <u>已經</u> 響了三天。
(2) 동사 뒤에는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	小王從桌子上拿了一本書,便看了起來。
(3) 연속적인 동작행위를 나타내는 후속 구문이 있다.	她吃完了飯, <u>換上了新衣服,出門了</u> 。
(4) 동사 뒤에 결과를 나타내는 보어가 있다.	我昨天回 <u>到</u> 了開封
(5) 문장 끝에 ‘了’가 있다.	我看了三邊 <u>了</u> , 怎麼還記不住?

위 예문에서의 ‘了’는 각 구조 뒤에 수반되어 종결점이 없는 동작행위나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종결적 사건으로 변화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별히 (4)의 ‘V1V2’구조는 동사 ‘回’의 뒤에 결과를 나타내는 보어 ‘到’가 출현하는데, 이 상황에서 뒤에 수반되는 ‘了’는 앞 구문이 서술하는 사건(V1)에 대해 연이어 발생하는 후속사건(V2)을 경계화 한다. 후속사건

뒤 ‘了’의 추가로 인해 동작의 완성과 그 실현을 나타냄으로써 동사의 경계를 확정짓는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경계성을 기반으로 ‘VP(V1V2)+了+NP2’ 사동구조를 형성하는 각 성분들의 자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각 자질의 종류는 상술한 기본적인 것 이외에 본 논의에서 주장하는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설정해 보았다.¹⁶⁾

[+종결성(telic)] : ‘끝’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télos에서 유래) 어떤 사건의 본유적으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종결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간축상 자연적인 결속점을 가지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종결성의 기준은 최종적 종결점을 가지는 종결적 사건과, 이가 결여된 비-종결적 사건을 구분한다. 한 사건이 최종적인 종결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그 상황의 개념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¹⁷⁾
[+시작성(start)] : 어떤 활동이나 사건이 시간축상 처음 단계를 이루거나 그렇게 하게 하는 시작점의 유무로 결정되며 본 논문에서는 [+종결성]과 상대적 의미로 해석한다. 예컨대 ‘沈了’는 시간축상 종결점이 있지만 시작점은 찾을 수 없다.
[+지속성(durative)] : 어떤 상태를 오래 지속하는 성질로 시간 구조상 시작점과 종결점 사이에 명확한 간격이 존재하며 전체 상황상 지속되는 과정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써 陳平(1988)은 ‘跳舞’, ‘唱歌’, ‘看電影’ 등을 들었다.
[+순간성(instantaneous)] :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매우 짧거나 혹은 두 사건이나 행동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매우 짧은 시간에 발생한 성질을 말한다. 예로써 陳平(1988)은 ‘爆炸’, ‘跌到’, ‘找到’, ‘眨眼’ 등을 들었다.
[+완정성(complete)] :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어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는 상태의 성질을 일컫는다. 가령 呂為光(2007)에서 논한 NP2인 ‘一對青緞鞋’는 앞에 수량사인 ‘一對’의 첨가로 인해 하나의 완정성을 갖춘 유경계적 성질을 갖게 되었다. ‘VP+NP2’인 ‘跑破了一對青緞鞋’ 역시 하나의 시작점과 종결점을 가진 사건성을 띠는 ‘V1+V2’ 사동구조가 완정태 시제 ‘了’를 추가함으로 인해 사건이 완정했음을 나타내므로 [+완정성] 자질을 설정하였다.
[+독립성(independent)] : 특별히 사물 즉 명사적 성분이 공간에서 인지되는 속성을 파악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량사가 문법구조상 제약작용으로 적용되어 유경계화한 현상에 대해 문장 내 다른 성분에 의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성질로 해석한다.
[+변화성(transformative)] : VP/V1V2의 영향력에 의해 NP2로 하여금 ‘...한 상태(상황)’으로부터 ...한 상태로 변화 시키는 것’ 즉 완전한 하나의 새로운 사건으로 변화되는 성질을 가리키며, [+실현성(realistic)]이란 그러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NP2에 나타나는 모종의 변화가 현실화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증강성(gradation)] ¹⁸⁾ : 달성사건의 시간도식에서 종결점의 순간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선행하는 ‘V1’이 ‘V2’라는 사건을 향해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즉 최고점의 국면을 향해 점층적 ‘증강’을 유발하는 성질로 볼 수 있다. 예컨대, ‘跑破’를 두고 볼 때 ‘V1+V2’구조는 ‘...하여...했다’라는 순간적 단계들로 나타나지만 사람들이 인식 속에는 ‘달리다’라는 시작점 및 예비 단계가 있는 후, 그 결과 최고의 국면인 ‘망가졌다’라는 결속점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16) 각 자질의 영문명칭은 하나의 고정적인 명사가 아니라 속성을 일컫는 것이므로 전문 논저(Vendler, Zeno, *Linguistic in Philosophy*, Ithaka, New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鄧守信, 『漢語動詞的時間結構』, 『第一屆國際漢語教學討論會論文選』, 北京語學院出版社, 1986; 이창호, 『상과 중국어의 결과보여』, 『中語中文學』, 第22期, 1998; 陳平, 『論現代漢語時間系統的三元結構』, 『中國語文』, 第6期, 1988을 참고로 형용사적 의미로 기입하였다.

17) 陳平, 『論現代漢語時間系統的三元結構』, 『中國語文』, 第6期, 1988, Günter Radden René Driven, 임지룡·윤희수 역, 『인지문법론』, 서울: 박이정, 2009, p.281 참조.

(1) ‘VP+了’ 구조의 경계성

(19) 他和王先生動了交涉了。

그는 왕 선생과 말썽을 일으켰다.

(20) 薩爾行進到墨西哥突然染了一種無名的熱病。

사르는 멕시코로 행진하다 갑자기 이름 모를 열병을 앓았다.

(21) 這次呂彬也破了世界紀錄，可仍舊是阿爾姆希克破世界紀錄在先。

이번에는呂彬 역시 세계 신기록을 세웠지만, 여전히 阿爾姆希克的 신기록이 선두에 있다.

예문에서는 ‘了’의 지향이 모두 VP가 되어 동작의 완성이나 혹은 종결을 나타내는데, 이로 인해 ‘了’와 결합한 동사는 반드시 종결점을 갖는다. 呂為光(2007:148)은 그 어떤 사건을 막론하고 이들은 모두 일정한 시간상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시간요소가 결핍된 문장은 대부분 완전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위 어휘적 사동2구문의 VP인 ‘動’, ‘染’, ‘破’ 등은 그 자체만으로는 비자주적 성질의 것으로, 목적어의 상태변화를 이끌어내어 사동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문법 수단이 필요하다. 그 성분이 곧 ‘了’로 만약 VP 뒤에 ‘了’가 없다면 시간선상 동일한 상태나 성질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예컨대 ‘了’와 결합 후 (19)의 ‘動’은 ‘他和王先生’이 애초에 말썽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과정을 거쳐 ‘動了’ 즉, ‘말썽을 일으켰다’라는 최종 상태가 된 것으로 시간선상 ‘종결+변화상태의 실현’이라는 시간요소가 생성된 것이다. (20)-(21) 역시 각각 멀쩡했던 NP1 ‘薩爾’가 ‘染了(감염됐다)’라는 상태로, ‘這次呂彬’이 ‘破了(깨뜨렸다)’라는 상태로 변화하여 완전한 하나의 사건구문을 완성한다.

정리하자면 ‘了’의 기능을 살피기 위해서는 了가 동사 뒤나 문장의 끝에 위치한다는 문법적 측면에서만 고려할 것이 아닌, 언어 환경적 요소들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보어구조와 형용사 혹은 동사가 술어작용을 하는 구문을 두고 볼 때 ‘了’는 완전히 ‘종결’의미로만 볼 수 없는데, 劉勳寧(2002:323)은 실제로 하나의 ‘VP+了’구조격식이 종결 의미를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방안을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하나는 VP 자체의 성질이며, 다른 하나는 ‘VP+了’가 처해진 환경이다. ‘了’의 기능을 모두 ‘종결’, ‘완료’라고만 이해할 경우 수많은 제한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실 이가 표현해 내는 ‘종결’의미 역시 어떤 조건 하에서 우연히 생성되는 현상으로 ‘了’ 자체의 고유한 의미적 특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어휘적 사동구문인 ‘VP+了’구조에서 ‘了’의 주된 기능은 어떠한 행위나 상황에 실질적인 종결점을 형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즉, 대상에 대해 ‘…한 상태(상황)로부터 …한 상태로 변화’하여 완전한 하나의 새로운 사건이 실현 발생되도록 기능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사실은 곧 형용사 및 자동사 혹은 결과보어 구조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사동’이라는 하나의 범주를 생성해 내는 과정에 참여하는 ‘了’에 대해 단순히 동작행위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사건이나 상태의 ‘발생’ 혹은 ‘실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더욱 적

18) [+증강성] 자질은 『인지문법론』, 앞의 책, p.282에서 언급한 달성사건(achievement)의 용어 설명 가운데 등장한 ‘증강’이라는 단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설정하게 된 것이다.

합성 및 설득력을 신는다고 판단된다. 이상 논의를 근거로 어휘적 사동구문의 중심을 이루는 ‘VP了+NP2’ 결합구조에 대해 사건성을 띠되 단지 일반 사건이 아닌 상태변화가 동반됨을 고려하여 각 성분의 경계성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VP사동구문(사건)	VP+了	NP2	VP了+NP2
紅了她的手指甲	[-지속성]	[+독립성]	[+완정성]
	[+종결성]	[+완정성]	[+변화성]
	[+변화성]		[+실현성]

(2) ‘V1V2’+‘了’ 구조의 경계성

두 개의 복합사건을 구성하는 결과보어 사동구조에서 동사(V1)는 보어(V2)와 목적어를 수반함으로 인해 종결점이 있는 하나의 유경계적 성질의 사건을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了’와 결과보어 V2가 동시 등장할 경우 매우 복잡한 분석이 요구되는데 이 둘 모두 완료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了’의 작용을 어떻게 풀이해야 할 것인가. 項開禧(1995)는 ‘看小說看壞了眼睛’, ‘想兒子想瘋了’ 등의 예문을 제시하며 ‘看小說’, ‘想兒子’는 다만 모종의 활동을 표할 뿐, 행위에 대한 확실한 종결점이 없기에 ‘무경계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看壞了眼睛’, ‘想瘋了’ 등은 완정 상태 시제인 ‘了’를 수반하기에 사건의 완성을 나타내므로 명확한 시작점과 종결점이 있는 ‘경계성’의 사건으로 여겼다. 또 다른 예문들을 살펴보자.

(22) 他們出門時，碰碎了門旁的陶罐。

그들은 외출시 부주의로 문 옆의 도자기 주전자를 깨뜨렸다.

(23) 此番下野是美國老板聯合桂系推倒了他。

금번 하야는 미국 기업주가 광시성(桂系) 군벌과 연합하여 그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다.

(24) 饑餓的獅子咬死了54只羊。

굶주린 사자가 54마리 양을 물어 죽였다.

(북경대 CCL)

위 복합사건을 나타내는 ‘碰碎’, ‘推倒’, ‘咬死’는 V1이라는 원인사건에 대한 결과사건인 V2의 결합이 목적어의 결과상태를 이끌어내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단일한 어휘적 사동사와는 달리 ‘了’의 존재여부가 좀 더 자율적이다. 이 구조적 사건은 확인된 바처럼 지속적인 내부적 시간과정을 밟지 않지만 시작점과 종결점의 간격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므로 거의 겹쳐지는 않는다. 물론 V1과 V2 사이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겠지만 그 경계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了’의 추가에 의한 사건의 실현은 상황이 다소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V1V2’ 구조란 선 후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을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발생사건은 인과성을 가지며 내부적으로 모든 동작행위 간에는 또한 분리성이 나타난다. 이때 선과 후 발생한 동작행위 가운데 하나의 시간정보 규칙을 이용해 상표지 ‘了’를 설명할 수 있다. 위 문장에서의 ‘了’

는 일반적으로 V2와 공기하는데 V2는 현실상의 표지를 가지며 동작행위에 대한 명확한 종착성을 갖게 하므로 그 사건을 경계화하는 역할을 한다. (22)의 ‘碰碎了’가 나타내는 것은 단지 ‘부딪혀 깨뜨렸다’라는 순간적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에서부터 ‘깨졌다’라는 상태변화가 현실화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만약 ‘了’가 부재한다면 ‘NP2’에 대해 ‘碎’라는 결과사건이 정착되었고 그에 대한 사건 변화가 확실히 발생했는지 매듭지을 수 있는 정도가 약할 것이다.

V1과 V2 각 성분의 특성 및 자질에도 차이가 있다. V1과 V2가 나타내는 성질과 경계성의 관계를 바라볼 때 V1이 [+경계성]일 경우 개체성이 부각되면서 폐쇄적 변화과정을 형성하고 그로 인하여 V2는 V1의 프레임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반면, V1이 [-경계성]이면 각 사건의 개체성이 아닌 그 성질이 개방적인 변화 과정을 실현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V2가 나타내는 사건이 V1이라는 프레임 안으로 융합할 수 있게 된다. 인지적으로 보았을 때 동사의 경계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특징으로 대부분 어떠한 상태에서부터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곧 동사의 경계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V1의 총당 성분은 경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성질의 것이 된다.

한편 V2는 V1이라는 원인사건에 대해 결과상태를 이끌 수 있는 자주성과 통제성이 강하다는 특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어떤 부가적인 수단 없이도 목적어에 영향을 전달해 상태변화를 야기하며, 이 영향성은 곧 강한 경계성을 다지게 한다. V2는 시간선상 종결점이 있는 성분으로서 즉 유경계성과 종결성의 특징 모두가 비교적 현저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了’는 V1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계성이 덜한 성분 뒤가 아닌 하나의 사건을 완전히 확정지을 수 있는 경계성이 큰 V2의 뒤에 수반되어 사건의 실현을 강조할 수 있는 것으로 본 논문은 해석한다.¹⁹⁾

- (25) a. *喊了啞 *跑了破 *哭了瞎
b. 喊啞了 跑破了 哭瞎了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완료란 어떠한 상황이 시간상 끝을 매듭지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NP2의 상황에 대해 반드시 특별한 변화된 상황을 초래함을 보장하지 않고 다만 V2의 작용은 동작의 결과와 NP2 상태변화를 설명함에 있으나, ‘了’는 동작의 완성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한 시작에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실현과정 전체에 경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NP2에 대한 ‘상태변화의 실현’을 확인함으로써 ‘V1V2’라는 상황이 확실히 현실화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일반적인 타동구문의 ‘了’와 사동구문에서 발휘되는 ‘了’의 작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았다.

(a) 타동구문

행위자(NP1) → 술어동사(VP+了1) → 피영향자(NP2) (사건의 종료, 완성)

19) V1과 V2사이 ‘了’를 삽입할 경우 비문이 되지만 V2뒤에 출현할 경우 성립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곧 V1과 V2가 크고 견고한 구조적 융합을 하고 있다는 의미와 상통하기도 하다.

(b) 사동구문

사동자(NP1) → 술어동사('V1V2'(VP)+了2) → 피사동자(NP2)

(사건의 종료 및 상황·상태변화의 실현강조)

다음은 논의를 근거로 결과보어 사동구문의 'V1V2(VP)+NP2' 구조에 대해 유경계성 사건으로 판단하며 그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V1+V2'사동구문	('V1V2')	(NP2)	VP+NP2
跑破了一對紅底青緞鞋 류	[-지속성]	[+완정성]	[+완정성]
	[+순간성]	[+독립성]	[+변화성]
	[+증강성]		[+실현성]
	[+시작성]		
	[+종결성]		
	[+변화성]		
喊啞了嗓子 류	[-지속성]	[-완정성]	[-완정성]
	[+순간성]	[-독립성]	[+변화성]
	[+증강성]		[+실현성]
	[+시작성]		
	[+종결성]		
	[+변화성]		

4. 결론

지금까지 중국어의 전형적인 어휘적 사동과 결과보어 사동구조에서 사동동사를 형성하는 'VP+了'와 'V1+V2+了'의 구조상 존재하는 객관적 현상의 행위에 대해 '경계 설정'이라는 인지적 언어이론에 입각하여 논의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어휘적 사동구조의 술어성분을 담당하는 단일한 성분인 'VP'는 모두 시간선상 내재적 종결점을 갖지 못한 무경계성 활동 동사이다.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는 완전한 사건을 형성하지 못하며 모종의 행위동작 혹은 상태변화를 일으킬 수 없기에 사동의미의 형성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了'가 수반됨으로서 시작점과 변화과정 그리고 종결점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발생하여 비로소 최종 상태로의 변화를 일으켜 단지 한 사건을 완성하는 것이 아닌 사동의 실현이라는 달성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또한 VP는 그 자체가 사물이나 사건을 지향할 수 있지만 사건 자체를 매듭지을 수 있는 종결의미가 수반되지 못한다. 了는 논항의 의미지향을 할 수 없지만 VP라는 사건이 현실화 되기 위한 필수적 동반 성분으로 VP를 도와 사건을 종결하고 실현시켜 비로소 경계하는 대상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결과보어('V1V2') 사동구조는 목적어의 결과상태를 이끌 수 있는 자주성과 통제성 곧 강한 경계성을 지닌다. 이러한 사동구조는 먼저 각 V의 결합을 통해 비로소 동작행위를 '완

료’함으로써 하나의 사건을 형성하고 이어서 최종 상태로의 변화과정을 제공 받게 되는 공식을 설정할 수 있다. 원인 사건의 발생 후 최고점의 증강 국면을 향해 종착에 이르러 ‘달성’사건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곧 유경계성의 성질로 볼 수 있다. 따라서 ‘了’의 존재여부가 좀 더 자율적인데, 그 작용은 앞 동사가 의미하는 사건에 대한 완성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한 시작에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전체를 현실화 시키는 데 있다. 즉, 완료를 거쳐 그 후 변화된 사건의 ‘발생’이나 ‘실현’이라는 상황이 나타나고 지속됨을 강조한다고 볼 때 더욱 광범위한 유경계성을 가진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바이다.

인지언어학이라는 구조는 경험의 구조, 즉 인간의 체험이나 경향성, 문화적 배경을 중시한다는 데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참으로 의미 있는 방법일 수 있다고 여겨진다. 향후 중국어 사동이라는 영역을 구성하는 낱말과 문장구조를 놓고 문법구조적, 의미적으로 모호하게 해석되는 부분을 더욱 다양한 인지적 시각에 비추어 연구해 볼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현철, 「現代中國語 他動詞·自動詞의 區分問題 試論」, 『중국어문학논집』, 第18號, 2001, pp.229-239.
- 나익주 옮김, 『개념·영상·상징—인지문법의 토대』, 서울: 박이정, 2005.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Langacker, R · W, 1991)
- 연재훈, 「타동성의 정의를 위한 원형이론성 접근」, 『언어』, 22-1, 1997, pp.107-132.
- 이수진, 「중국어 어휘 사동의 의미 구조」, 『中國語文學論集』, 第70集, 2011, pp.107-132.
- 이우철, 「有界, 無界 이론을 이용한 중국어 연구에 대한 고찰」, 『중국인문과학』, 第44集, 2010, pp.117-130.
- 이봉금, 「'V1+V2' 구조의 사동의미 과생 및 어휘적 사동과의 차이」, 『中國語研究』, 第73集, 2017, pp.20-43.
- 이창호, 「상과 중국어의 결과보어」, 『中語中文學』, 第22期, 1998, pp.143-162.
- 정 은, 「'V+完'과 'V+好'의 의미특징 및 인지과정 비교 연구」, 『中國學』, 第65期, 2018, pp.147-160.
- 최규발, 「現代中國語 結果補語의 意味指向」, 『中國語文學』, 第31期, 1998, pp.173-198.
- 邊勤奮, 「關於“了1”和“了2”」, 『浙江師大學報』, 第3期, 1996, pp.119-121.
- 陳 剛·陳力坤, 「由幾種“V+了+賓語”的自由結構看“有界與無界”」, 『中國語文』, 第1期, 2008, pp.152-157.
- 陳 平, 「釋漢語中與名詞性成分相關的四組概念」, 『中國語文』, 第2期, 1987.
- , 「論現代漢語時間系統的三元結構」, 『中國語文』, 第6期, 1988, pp.401-422.
- 鄧守信, 「漢語動詞的時間結構」, 『第一屆國際漢語教學討論會論文選』, 北京語學院出版社, 1986.
- 何元建, 『生成語言學背景下的漢語語法及翻譯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07.
- 劉月華, 『實用現代漢語語法』, 商務印書館, 2001.
- 李思旭, 「“有界”“無界”與補語“完”的有界化作用」, 『漢語學習』, 第5期, 2011, pp.73-82.
- 李興亞, 「試說動助詞“了”的自由隱現」, 『中國語文』, 第5期, 1989.
- 呂爲光, 「釋漢語中與名詞性成分相關的四組概念」, 『中國語文』, 第2期, 2007, pp.148-150.
- 劉勳寧, 「現代漢語句尾“了”的語法意義及其解說」, 『世界漢語教學』, 第3期, 2002, pp.70-79.
- 劉辰誕, 「界與有界化」, 『外語學刊』, 第2期, 2007, pp.53-58.
- 劉月華, 「動助詞“過2, 過1, 了1”用法比較」, 『語文研究』, 第1期, 1998.
- 馬慶株, 「談現代漢語的時制表示和時態表達系統」, 『中國語文』, 第4期, 1992.
- 龔千炎, 「現代漢語的時制表示和時表達系統」, 『中國語文』, 第4期, 1991.
- 沈家煊, 「有界與無界」, 『中國語文』, 第5期, 1995, pp.367-378.
- 石毓智, 「論現代漢語的“體”範疇」, 『中國社會科學』, 第6期, 1992, pp.183-201.
- , 「現代漢語謂語結構的有界性及其歷史成因」,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2000.
- , 「漢語發展史上的雙音化趨勢和動補結構的誕生」, 『語言研究』, 第1期, 2002.
- 宛新政, 『現代漢語致使句研究』, 復旦大學校 박사학위 논문, 2000.
- 吳福祥, 「漢語體標記“了”, “著”爲什麼不能強制性使用」, 『當代語文學』, 第3期, 2005, pp.237-286.
- 項開喜, 「漢語重動句式的功能研究」, 『中國語文』, 第4期, 1995, pp.40-47.
- Günter Radden René Driven, 임지룡·윤희수 역, 『인지문법론』, 서울: 박이정, 2009.
- Vendler, Zeno, *Linguistic in Philosophy*, Ithaka, New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예문출처: <http://ccl.pku.edu.cn>

『고려대 중한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9.

『(최신) 중한사전』,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2001.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認知語言學, 有界, 無界, 有界化, 界性, VP, V1V2		
	영문	Cognitive Linguistics, Boundedness, Boundary, Unboundary, Boundarization, VP, V1V2		
<div>Boundary Property Analysis of ‘NP1+VP+NP2’/‘NP1+(V1V2)+NP2’ Causative Structure</div> <div>Lee, Pong-Keum</div> <div><p>‘Boundedness’ is a way for human beings to recognize objective things in the world. The boundary is divided into two kinds of opposites: bounded and unbounded. For example, objective things have the opposite of 'bounded' and 'unbounded' in space, and actions also have the opposite of 'bounded' and 'unbound' in the timeline. This parallel opposition in the world is also clearly reflected in the grammatical structure of the language used by human beings. So far, in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linguistics, modern Chinese has applied the contradiction of boundaries. For example, there are many grammatical and lexical theories that are analyzed and interpreted in terms of cognitive linguistics, and research result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nouns, verbs, and adjectives, are also proposed in the form unit. However, there are few professional studies on the opposite aspects of the typological form of the verb.</p><p>This study, based on the formation of typical lexical impetus and the result complement grammatical differences in the dynamic structure, explores the boundary differences between "VP" and "V1+V2" as predicates. In addition, it is characterized by its subsequent NP2 and '了'. This will broaden the horizons of modern Chinese studies and help readers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modern Chinese.</p></div>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이봉금 / 李奉錦 / Lee, Pong-Keum		
	소 속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Em@il	marbum79@naver.com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05월 01일	심 사 일	2019년 05월 23일
	수 정 일	2019년 06월 15일	게재확정일	2019년 06월 18일